

## ‘행사의 주연’ 한동민 “이런 겨울은 난생처음”



각종 인터뷰·시상식·우승 인사까지 7kg 빠졌지만 색다른 경험 즐기는 중

41홈런·115타점... 팀 내 고과도 최고 내년 1월엔 첫 딸 태어나 ‘행복한 겨울’

2018시즌을 최고의 한 해로 장식한 SK 와이번스 한동민(29)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한국시리즈(KS) 최우수선수(MVP) 등극의 여파다.

데뷔 이래 이토록 정신없이 출발한 비시즌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12일 팀 통산 4번째 KS 우승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방송사 인터뷰, 각종 시상식, 구단 내부행사, 우승인사 등 일정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한 달여 온전히 휴식을 취한 날은 단 하루뿐이다. 포스트시즌을 치르기 전과 비교하면 체중이 무려 7kg나 줄었다. 한동민은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큰일이다. 시즌을 마친 뒤 운동을 아예 못했다”면서도 “너무 힘들지만, 즐거워 한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느냐”고 웃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까닭에 염경엽 신임 감독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한동민은 “아직 감독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잘 안 붙는다. 워낙 꼼꼼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요. 야구 이론에도 능통하시다”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아무래도 올 시즌 잘 안됐던 부분들을 보완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어 “조만간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 한 번 만나면 이야기를 길

게 하시는 편이다. 긴 여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혔다.

한동민은 팀 내 타자 연봉고과 1위다. 손차훈 단장은 2019시즌 연봉 인상률이 가장 높은 타자로 고만 없이 한동민의 이들을 꺼낸다. 엄 감독도 손 단장에게 “연봉 좀 많이 챙겨주라”며 장난 섞인 진심을 전할만큼 대내외적으로 한동민을 향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민의 연봉은 2017년 7000만원에서 2018년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2017년 발목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했지만, 103경기 29홈런 73타점으로 좌타 거포로서 가능성을 입증한 덕분이다.

한동민의 몸값은 날로 치솟고 있다. 올해 정규 시즌 전 경기에 가까운 136경기를 소화하며 SK 좌타자 최초로 40홈런 고지(41개)를 밟았다. 팀 자체 한 시즌 개인 최다타점 신기록도 한동민이 새롭게 썼다. 115타점을 뽑아 2017년 최정(113타점)의 벽을 넘어섰다. 더욱이 KS 우승 컵을 들어올리기까지 한동민의 공헌도를 따지면 가파른 연봉 상승률은 당연한 수순이다.

아빠가 되는 결정사도 앞두고 있다. 2019년 1월이면 첫 아이가 태어난다. 어여쁜 딸이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동시에 ‘훈공장’을 이끌어갈 주축 선수로서의 역할과 기대치 또한 점차 늘어난다. 2018시즌을 치르며 뜻하지 않은 슬럼프에 시달렸던 점을 고려하면 한층 개선될 2019시즌에는 40홈런을 넘어 50홈런도 때려낼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다. 특히 2017시즌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엄 감독님과 잘 맞춰나갈 것”은 한동민의 겨울엔 기쁨과 설렘이 공존한다.

서대명 기자 seody3062@donga.com



최주환

이대호

“대호선배님 기록 너무 좋아 제가 GG 받으면 그건 기적”

‘커리어 하이’ 두산 최주환의 진심

두산 베어스 최주환(30)은 뒤늦게 핀 꽃이다. 2006년에 입단한 그는 상무를 거쳐 다시 두산에 자리 잡기까지 단 한시즌도 ‘주전’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못한 선수였다.

내야수로는 빼어난 여섯 선배들이 버티고 있었고, 타격에서는 간간히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확고한 믿음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선수가 그렇듯 ‘백업’으로 늘 덕아웃을 지켰던 자원이다.

그런 그가 올 시즌 목혀둔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두산의 지명타자 자리를 꿰찬 뒤 138경기에서 타율 0.333, 26홈런, 108타점, 87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정규시즌 우승에 큰 힘을 보탰다.

소위 ‘커리어하이’라 불린 정규 시즌, 프로 12년의 한 맺힌 세월을 단 한번에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이후 한국시리즈(KS)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한해 최고의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다는 골든글러브(GG)도 어느덧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다만, 경쟁자 중 높은 산이 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 4번타자 이대호(36)다.

이대호는 올해 14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3, 37홈런, 125타점, 81득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최주환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좋은 수치다. 더군다나 지명타자 부문은 순전히 타격 능력만으로 평가를 받는 자리다. 이대호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2018 희망터하기 자선야구대회’에서 만난 그는 이런 얘기에 대해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기대를 안 한다’였다. 최주환은 “이대호 선배께서 너무 좋은 기록을 남기셨다. 내가 받으면 그건 기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상식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생각한다. 사실 예전에 퓨처스리그 소속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대륙간컵에 진출돼 시상식에 직접 가지 못했다”며 “올해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 한다”고 덧붙혔다.

비시즌 준비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운동을 시작한다. 기동을 잘 잡아놔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겨우내 준비를 잘 해서 더욱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곁들였다. 고척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 FA 계약 안부러운 원원 트레이드의 새 모델

## SK-넥센-삼성 삼각트레이드의 가치

3주째 냉랭한 FA시장에 신선한 충격과 포수 이지영 얻은 넥센 수완 대단하지만 삼성·SK도 최적 카드 얻어낸 원원 정석

KBO리그 최초의 삼각 트레이드가 똑같은 모습인 스토브리그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왔다. 7일 SK 와이번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가 전격적으로 외야수 김동엽(28)과 고종욱(29), 포수 이지영(32)을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고종욱을 영입한 SK는 테이블세터, 이지영을 확보한 넥센은 안방, 김동엽을 잡은 삼성은 거포 보강에 성공했다. 시간이 흐르면 이번 트레이드의 당사자들과 해당 팀들의 희비는 제각각으로 갈리겠지만, 남은 자원을 매개로 꼭 필요한 전력을 얻는 트레이드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KBO리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이정표 같은 다자거래’이자 ‘용기 있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 ●FA 시장을 능가하는 현물거래?

2019년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개장한지 3주 가까이 흐르도록 아직 3건의 제한적 거래만 신고됐다. 모두 내부 FA의 잔류 계약이다. NC 다이노스가 내야수 모창민(33)을 3년 총액 20억원, SK가 포수 이재원(30)과 3루수 최정(31)을 각각 4년 총액 69억원과 6년 총액 106억원에 붙잡았다. 총 15명이 시장에 나왔지만 계약 진행 자체가 더딘데다, ‘FA 거품론’ 속에 다시금 부정적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을 뿐이다. 두산 베어스 출신 포수 양의지(31)의 거취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나, 나머지 FA들의 협상 테이블에선 냉기마저 감돌고 있다.

이처럼 FA 시장이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전광석화처럼 SK-넥센-삼성이 삼각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다. 그동안 철저히 FA 시장 위주로만 돌아가던 스토브리그에도 활력소 같은, 전환점 같은 거래로 기록될 수 있다. 3루수 보강이 절실한 LG 트윈스의 움직임은 향후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하다. 원하는 물건이 흔치 않은 데다, 나왔더라도 가격은 만만치 않은 FA 시장에서 목을 매는



김동엽

고종욱

이지영

니 트레이드 시장에서 대차대조표를 맞춰보는 편이 훨씬 능률적일 수 있다.

## ●FA 계약보다 가치 있는 트레이드?

솔 만한 FA 포수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사실이 이재원의 69억원 계약에서 재확인됐다. 이재원보다 높은 등급의 FA 포수에게는 과연 얼마나 안겨줘야 할지, 양의지와 계약을 추진 중인 팀들은 훨씬 더 어려운 방정식에 직면한 상태다. 트레이드로 이지영을 얻은 넥센의 수완이 단연 돋보이는 이유다.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를 넥센은 단숨에 풀었다.

삼성과 SK도 FA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없었던 수요를 일거에 해소했다. ‘국민타자’ 이승엽의 은퇴 이후 삼성은 거포 갈증에 시달려왔다. 단순한 거포를 넘어 오른손 장타자를 확보한 만큼 이제 김동엽과 라이온즈파크의 공황이 잘 맞도록 거드는 일만 남았다. 지난해 22홈런, 올해 27홈런을 친 김동엽이 한 시즌 30개 정도의 홈런만 꾸준히 생산할 수 있다면 FA 영입 못지않은 트레이드가 될 듯하다.

SK 역시 2016년 3월대 중반의 타율(0.334)에 30도루 가까운(28개) 활약을 펼친 고종욱의 영입이 만족스럽다. 신임 염경엽 감독이 넥센 사령탑 시절 중용하면서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냈던 만큼 내년 시즌 고종욱의 부활이 기대된다. 한화 이글스 출신 외야수 이용규(33) 외에는 이렇다할 테이블세터가 보이지 않는 이번 FA 시장에 비춰보면 벌써부터 ‘가성비’ 높은 트레이드로 손색없어 보인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SK 와이번스 한동민에게 침표는 없다. 비시즌이지만 우승의 여운을 만끽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나 곧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할 참이다. 두산 베어스와 맞붙은 올해 한국시리즈에서 2홈런 4타점으로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은 기운을 잘 살려 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진정한 간판스타가 되고자 한다. 스포츠동아DB